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게 <36> 전남 광주 보더콜리 견주들 모임

반려견도 감정 나누고 기쁨 친구가 필요하죠

22명 활동 중인 친목 동호회
 ‘두개의 심장’ 가진 체력왕
 지능 뛰어난 양치기 개 활약
 주기적 만남 통해 정보공유
 산책·여행 함께하며 추억 쌓아
 도그 어질리티 대회 출전 등 계획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커뮤니티를 만들며 살아간다.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사람 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만나 소통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은 반려동물에게도 소중한 시간일 것이다.

‘전남 광주 보더콜리 견주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 모임은 광주·전남에서 보더콜리를 키우는 견주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창립, 이제 막 1년이 조금 넘는 신생 동호회다.

모임은 보더콜리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더콜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팁과 평소 겪는 어려움, 고충 등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22명이 활동중이며 보더콜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현(27·광주시 북구 매곡동)씨도 3살짜리 보더콜리 한결이의 ‘엄마’다. 2019년 2월 한결이를 입양해 함께 살게 된 김씨는 매번 산책을 나갈 때마다 혼자 쓸쓸히 걸어 다니는 한결이의 모습을 보고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을 나누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전남 광주 보더콜리 견주들’ 동호회를 알게 됐고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

일에 한 두번 시간이 맞는 반려인들과 모여 애견 카페에서 친목을 다지거나 집 근처 공원 등에서 산책을 즐겼다. 이후 다른 회원들과 점점 친해졌고 모임을 이끌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더콜리들과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망고와 리치를 키우고 있는 회원 임지훈(30)씨는 “회원 모두가 보더콜리를 키우다 보니깐 이 견종만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잘된다”며 “반려견들도 같은 견종을 만났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모임을 통해 친구도 많이 생겨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더콜리를 키우다 보면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엄청난 활동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몇 시간의 산책은 기본. 집 안의 가구는 물어뜯겨 성할 날이 없었고 덩치가 큰 보더콜리들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과의 트러블도 겪어야 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듯 어마어마한 체력을 자랑하는 보더콜리(Border Collie)는 보통 키 43~56cm, 몸무게 16~23kg의 대형 견이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개’로 꼽힐 정도로 지능이 높고 학습능력이 뛰어나며 영국 국경지역에서 양치기개로 길러졌기 때문에 보더콜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활발한 성격에 덩치가 크고 체력이 좋아서 엄청난 운동량을 요구해 회원들은 한 번 모이면 거의 하루를 꼬박 함께 시간을 보낸다.

지난달 모임에서는 당일치기로 순천 일일레저타운을 방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순천, 여수, 광주에 사는 회원 8명과 보더콜리 8마리가 함께 산책은 물론, 수영도 하며 더위를 식했다.

경현씨는 “오랜만에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뛰는 것 같다”며 “한결이가 여러 친구들을 만나 쉴 틈 없이 뛰어 노는 걸 보니 내 기분도 좋고 행복했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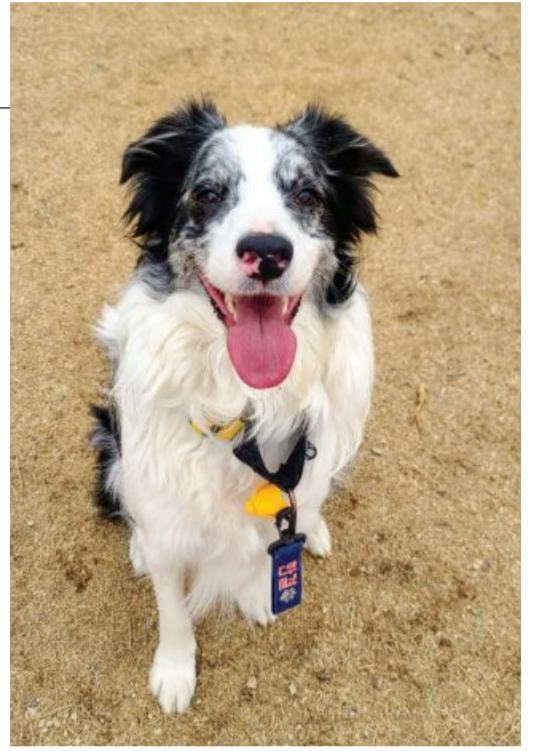
“광주에는 대형견이 산책하고 운동하며 시간을 보낼 만한 공간이 없어 항상 아쉬웠어요. 반려동물이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정책이나 시설 등도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한결이와 다른 보더콜리들과 여러 활동을 하며 추억을 만들어 갈 생각이예요.”

‘전남 광주 보더콜리 견주들’은 오는 9월 1박 2일 일정으로 캠핑을 떠날 예정이다. 또 펫 페스티벌, 반려동물 박람회 등에도 참여할 생각이며 ‘도그 어질리티(dog agility)’ 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이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도그 어질리티 대회다. 도그 어질리티는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뛰며 터널, 허들 등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대회인데 지금은 모임 규모가 작지만 회원들이 더 모이면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대회에 출전하겠다는 각오다.

경현씨는 “보더콜리는 높은 지능 외에도 뛰어난 체력, 민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종이다”며 “어질리티 대회를 통해 한결이가 도전, 성취 등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질리티 대회는 스포츠 대회지만 주인과 개가 교감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함께 무언가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체력을 기르는 중이고, 한결이도 장애물 달리기 등을 하고 나면 꼭 몸 상태를 체크하고 마사지를 해줘요. 일단 대회에 출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준비중입니다. (웃음)”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경현 대표의 반려견 한결이.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보더콜리들.



지난달 ‘전남 광주 보더콜리 견주들’은 반려견들과 순천 일일 레저타운을 방문해 수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임지훈 회원이 키우는 보더콜리 망고(왼쪽)와 리치.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